

하서 김인후의 경물에 대한 수용과 형상화

한 성 금

1. 서언
2. 관조와 청정추구
3. 초월적 이상향 동경
4. 순수감흥의 심미의식
5. 결어

<국문초록>

하서 김인후는 16세기의 뛰어난 문인이면서 道學者였다. 그의 시 인식은 道本文末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의 자연시까지도 도학시로 규정짓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자연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드러낸 시작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시에 표현된 김인후의 자연 경물에 대한 관점과 느낌을 살펴보고 하서 시의 다양한 면모를 연구목적으로 했다.

김인후의 경물인식은 다음과 같다. 철저한 도학자인 그의 자연인식은 일차적으로 천인합일의 이치를 내재한 본원적 공간으로서 심신을 수양하고 성정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의 갈등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치적으로 정쟁에서 밀려나 자연 속에서 현실적 고뇌와 울분을 해소함으로써 시인 자신의 탈속적 사상과 정감을 기탁하였다. 그런데 김인후의 자연인식 속에서 특히 주시 할 것은 흥취와 순수한 심미의식의 공간이다. 그는 누정을 비롯한 자연 속에서 성리학적인 관념을 배제한 시들도 많이 남겼는데 자연 경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몰입하여 미감을 드러낸 시들을 남기고 있어 문학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즉, 자연 발생적 감정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지닌 그는 감정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정서적 절제와 구속을 강요했던 다른 도학자들과는 변별되는 시각을 가짐으로 도학 문학 확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핵심어: 도학자, 도학시, 경물, 탈속적 사상과 정감, 흥취, 심미의식

1. 서언

河西 金麟厚(1510, 중종 5~1560, 명종 15)는 16세기의 뛰어난 문인이면서 도학자였다. 김인후의 시 인식은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인 道本文末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시와 같은 문장은 도를 실현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문장은 도의 실현을 위한 실리를 구현하고 성정을 순화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인후도 도에 근거를 둔 시들을 많이 지었다. 그는 도학자로서 자기세계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의 자연시까지도 도학시로 규정짓기도 한다.¹⁾ 김인후는 16세기에 네 번에 걸친 사화 속에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義와 道에 따른 정치에 힘쓰다가 그의 뜻과 다른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30대의 젊은 나이로 관직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왔다. 물론 이것은 유가적 삶을 따른 것으로 세상의 태평시에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 난세에는 자연으로 돌아가 심성도야와 학문에 정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순수하게 자연에서 흥취를 찾고자 했던 자연시까지도 도학적인 시관으로 보려는 것은, 폭넓은 김인후 시의 다양성을 간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36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51세에 생을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연에 묻혀서 살았다. 주로 산수, 전원, 강호 등을 찾아다니면서 성정을 함양하고 시적 흥취와 교감을 키웠다. 물론 자연 경물의 수용에서는 성정을 정결하게 도야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하서의 자연시가, 도의 관념성이 배제되고 순수감흥을 형상화한 작품에서까지 도학시로 해석한다면 김인후의 시적 관점을 왜곡하고 나아가 그의 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가 자연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의 시작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시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²⁾는 점을 제기하여 자기세계가 확고한 도학자이지만 도의 관념전달이 아닌 순수한 시의 세계도 살펴 보고자한다. 즉, 인간의 정조가 강렬하게 표출된 서정적 작품과 자연의 흥취를 즉물적으로 그린 심미적 묘사의 시도 주목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16세기 사림의 한 사람인 김인후의 자연 경물에 대한 관점과 느낌을 살펴봄으로써 하서 시의 다양성을 드러내는데

1) 김인후의 산수시(혹은 강호시) 및 자연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학적 관점에 치중해왔다. 특히 주자의 <武夷權歌>를 해석한 시는 도덕이나 풍효가 문학적 변용을 거치지 않은 채 생경하게 노출된 관념시로 파악되었다. <武夷權歌>는 武夷山の 九曲을 읊은 서경시인데, 김인후는 이를 산수의 미경을 읊은 산수시가 아니라 산수를 매체로 하여 도학의 진도 과정과 도학의 오묘한 이치를 노래한 造道詩로 해석했다. (李敏弘, 『士林派文學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이러한 도학적 시관은 김인후의 다른 산수시를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래서 <瀟灑園四十八詠>과 같은 작품도 단지 詠物詩法으로 쓴 것이 아니라, 朱子の <武夷權歌>와 같은 瀟灑風의 道學詩라 했다. (李鍾建, 『瀟灑園四十八詠考』, 마산대 논문집, 6권 1호, 1984, 3쪽) 또한 김인후의 자연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닌 ‘觀念의 自然’이고, 詠物自樂의 경지는 일반적인 興趣의 개념을 넘어 한층 여과, 승화된 풍류시로서 도의 경지를 이룬 것이며, <自然歌>나 <俛仰亭 30詠>, <瀟灑園四十八詠>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丁益燮, 『湖南歌壇을 背景으로 한 河西 金麟厚 研究』, 『河西 金麟厚의 思想和文學』, 河西記念會, 1994, 218쪽) 또한 하서의 시 경향을 瀟灑風으로 보고 ‘以景入道’, ‘以小見大’의 형상화 양상을 살핀 연구도 있다.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71쪽)

2) 朴性奎, 『河西 金麟厚의 自然詩 研究』, 『河西 金麟厚의 思想和文學』 3집, 財團法人 河西學術財團, 2005, 323쪽.

초점을 둔다.

2. 관조와 청정추구

조선시대 도학파의 자연에 대한 경물 인식은 일종의 관념 속의 자연이다. 사대부들의 산수나 자연경물은 단순한 玩賞의 대상이 아니라 도학적 理法이 내재된 대상으로 여겼다. 따라서 김인후가 살았던 당대의 사림들의 자연인식 태도 또한 자연경물에 대한 피상적인 감상이나 유상보다는 그곳에 구현된 일상의 도리를 탐구하거나 성정의 바른 도리를 함양하는 매체로 인식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³⁾

1545년 이후 고향에 돌아와서 지은 하서 시는 성리학적 사유와 학문하는 삶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세계를 보면 도학적 의식의 직서, 표현에 정도, 심미적 자연 완상이 혼재되어 나타난다.⁴⁾ 특히 하서의 자연 경물을 보며 지었던 시에서 성리학적 사유세계가 표현된 시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대부의 소쇄하고 청정한 정서를 유려하게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관조적인 자세로 자연경물을 음미한 시들이 많은데, 觀照란 觀物하여 照心한다는 말로서 시인의 시각적 감응을 통해 형상화되는 자연경물이 그 내면의 맑고 순수한 성정과 상응한다는 것이다.⁵⁾ 여기서의 성정은 성리학적 사유와 직결되어 있고 사림파의 산수시는 산수를 매체로 그들이 긍정하는 주제를 형상화하고자 했다.⁶⁾ 김인후는 자연을 음영하며 성정을 시로 형상화할 때 질탕한 유락보다는 조용히 관조하면서 내성을 통하여 성정을 맑게 성찰하고 고결한 정신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연 경물은 天理의 발현이라는 도학적 관념이 생경하게 표출되지 않고 예술적 승화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학파시에 드러난 자연시⁷⁾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것은 호남의 누정을 중심으로 교류한 교류시의 영향인 듯하다. 호남 사대부 문인들의 교류시는 수려한 자연 풍광을 서정적이고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시들이 많다. 호남의 사대부 문인들은 성리학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작품 실재에 있어서는 순수 문예적 취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표현방식에서도 한시의 전통과 품위를 바탕으로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사대부 문학의 영역 속에 있었다.⁸⁾ 따라서 자연에 도학적 관념을 엮을 때에도 직서적인 서술보다는 심미적 형상성으로 묘사하여 정의를 드러내고 있다.

3) 金鎭英, 「하서 시문학의 언어적 특성과 정흥적 도학」, 『河西 金麟厚의 思想和 文學』 3집, 財團法人 河西學術財團, 2005, 394쪽.

4)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4, 52쪽.

5)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35쪽.

6) 이민홍, 「朝鮮 前期 自然美의 追求와 漢詩-性情美學과 山水詩」, 『한시 연구』 7, 태학사, 1997, 259쪽.

7) 도학파의 자연시는 시상의 자연스런 이행과 담담한 어조의 묘사, 서술적인 어법이 드러나고, (퇴계의 <晩步>, 『퇴계집』 권1, 59쪽) 자연에 대한 성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 기교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고 내면적 정신성을 표출한데 비해 호남 시는 자연 환상의 심미성에 근거하고 형상화에 근거하고 있다. (박은숙, 위의 책, 85쪽)

8) 박은숙, 위의 책, 88~89쪽.

黃昏緩步行	어둠녘 느릿느릿 걷노라면
松韻和灘聲	솔소리 여울소리 조화롭구나
素月更流彩	하얀 달이 빛깔을 흘러내리니
悠然心境清	마음속이 유연히 맑아지구나

『全集』 권5, <松灘翫月>

이 시는 눈앞의 정경이 그림처럼 그려진다. 어둠이 내리는 솔숲을 걸어가면서 개울의 여울소리가 들리고 하얀 달이 그 사이로 떠오르는 심미적 공간을 읊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松, 灘, 素月 등은 맑음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자연적 요소로 인용되고 있다. 작가가 표상하는 맑음의 추구는 자연적 요소이며 이 공간에서 자신의 성정을 맑게 함으로 자아를 세속의 진속으로부터 충전시킨다.

중앙의 혼탁한 정치 상황을 등지고 절의를 내세우며 귀거래를 택했던⁹⁾ 그는 자신의 울분과 비통한 마음을 道로서 정화하여 선비의 기상과 성정의 청정을 추구했는데 그 수용처가 바로 자연이었다. 즉, 김인후가 맑은 것들을 추구했던 기호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물, 달, 바람,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김인후의 시에서 이처럼 맑음의 이미지가 가득한 것은 얼마나 그 자신이 청정한 자아를 추구했는가를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이 시 또한 자연의 관조를 통하여 내면정서를 순화하고 있는데, 철저한 도학자인 김인후의 표현으로는 심미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潭清深見底	못이 맑아 깊이 바닥까지 보이고
浴罷碧粼粼	목욕을 마치니 푸르러 깨끗하고 깨끗하네
不信人間世	인간 세상이란 믿을 수가 없으니
炎程脚沒塵	무더운 날 다리의 먼지를 없애네

『全集』 권5, <槽潭放浴>

이 시를 읽으면 수려한 자연경관의 맑은 계곡물에서 몸을 담그며 여유를 즐기는 장면이 상상되고, 맑은 못의 청량한 이미지가 소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못을 보고 자연 경관에 취하는 심미적 완상보다는 자연경물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시이다. 결국 이시에 묘사된 청량하고 소쇄한 경관은 김인후 내면의 청정한 마음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9) 갑진년에 이르러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모두 선생에게 큰 경륜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선생은 미리 내다보는 점이 없지 않은지라 비록 첫 정사에 있어 선생에게 기대는 마음이 간절하고 지극하였지만 선생은 觀變玩占하여 진퇴에 있어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을사년에 선생은 갑자기 인종이 신민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목숨이 끊어질 변한 적이 여러 번이며 살고 싶지 않은 것같이 보였다. 그리고 매양 인종의 기일을 만나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통곡하고 돌아오곤 하였다.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자 누차 관직에 제수하고 부르는 뜻이 매우 간곡하였으나 일체 병을 들어 사직하였다. “中廟上賓仁廟即位皆以大猷是程望於先生而先生不無神於知幾者矣雖初服之庇倚切至而先生觀變玩占感之於進退之際矣乙巳先生猝聞仁廟奄棄臣民號擗屢絕如不欲生每於仁廟諱辰往入溪山痛哭而歸明廟即位文定垂簾屢有除拜召旨勤懇而一切辭以疾病.”(『하서선생전집서』, 『하서전집』 상,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7, 22쪽)

자연을 심신 수양처의 대상으로 삼았던 山水樂은 孔子의 樂山樂水와 曾點의 風詠에서 기인한다. 증점이 “늦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관을 쓴 어른 5~6명과 동지 6~7명과 함께 浴沂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나는 증점을 허여한다.”라고 하여¹⁰⁾ 성정을 청정하게 수양하는 대상으로 자연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조선전기 사람들이 복잡한 활로를 벗어나 풍파를 잊은 듯이 고요히 강호에 물러 앉아 화려한 자연을 즐기고 그 가운데 몰입하여 들어가 참다운 자연미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¹¹⁾ 일반적인 현상이다.

인종의 승화로 인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진 김인후가 자아를 찾고 청결하게 지켜야 했던 곳은 바로 자연이었다. 김인후의 자연시에는 ‘淸’을 강조했던 흔적이 시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의 많은 시에서 청정의 이미지로 표상된다. 따라서 김인후에게 있어 자연이야말로, 교감을 통하여 참된 인간적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 도덕적 자기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단의 하나였다.

危檻憑虛起	높은 난간이 허공을 뚫고 솟아
頽然寄老身	힘없이 늙은 몸을 의탁했네
臨風頻極目	바람 향해 자주 눈을 크게 뜨고
對月漸澄神	달 대하니 점차 정신이 맑아지네
山色和雲淨	산 빛은 구름과 조화되어 맑고
川聲得雨新	시내소리는 비 내려 새롭네
賞心雖坐晚	마음에 맞아 늦도록 앉아 있으니
亦足展吾眞	또한 내 진정을 펴 볼 만하네

『全集』 권9, <次金上舍若晦閒亭韻>

높은 난간 위로 떠오르는 달, 비가 내려 새로워진 산수, 그곳에 서있는 노옹 등 회화적인 풍경묘사가 일품이다. 하늘 높이 떠오르는 달은 시인의 정신을 맑게 하고 비온 뒤의 시내 소리는 정신을 새롭게 한다. 작가는 자연경관을 즐기며 자연의 조화미 속에서 내면의 참 眞을 찾고 있다. 즉 세상과 격리된 높은 곳에서 홀로 자연을 관조하고 있는 시인은 정치적 현실을 떠난 외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곧 자연물의 관조를 통해 자아를 추스르고 내면의 평정을 찾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시의 ‘淨’과 ‘新’ 등의 시어는 性情之眞을 드러낸 요소인데, 자연경물을 완상함으로써 흥취를 즐기고 내면을 淸眞하게 하는 품위 있는 사대부의 의식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과의 주동인물이었던 이이는 “시란 말 중에서도 精한 것으로 성정에 근본한 것이므로 꾸미고 가꾸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가 자연에서 나오는

10)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吾與點也.”(『論語』, <先進篇>)

11) 趙潤濟, 『韓國文學史』, 陶南學會, 1998, 141쪽.

것”¹²⁾이라 하였다. 도학자들이 지향하는 시는 인위적 기교나 문사를 배격하고 진실과 이치를 존중했는데¹³⁾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로 직서적인 표현이 많았다. 이 시에도 道의 관념이 깔려 있다. 도의의 근본으로서의 자연과 나와의 만남에서 빛어지는 화합의 기쁨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정의를 드러냈으면서도 그에 함몰되지 않고 자연의 심미적 관조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운치를 더하고 있다. 이 작품은 景을 통하여 情을 드러내는 시적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의 누정시나 산수시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며 회화적인 수법으로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들이 많다.

3. 초월적 이상향 동경

인간은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갖는다. 특히 현실과의 부조화의 삶을 살다보면 엽매인 세상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의 공간인 이상향을 그리게 된다. 특히 사화와 당쟁으로 인하여 도학자로서 정치적인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깊은 좌절을 느꼈던 김인후는 현실을 초월하는 주체를 자연에서 찾고자 했다. 즉,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로 인한 현실적 고뇌와 울분을 해소하고자 탈속세를 지향하였고, 탈속세의 대상은 자연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런 자연 공간은 내면 가운데 존재하는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를 완충하고 보상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조 도학자들의 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자연유람이었다. 김인후 역시 자연을 현실과 분리된 사실적, 객관적, 세계로 보고 실재하는 자연의 모습을 仙境으로 상징화 하였다. 그러므로 상상의 자연 공간을 유영함으로써 忘世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救世를 지향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또한 김인후의 시에 초월적 이상 세계를 동경하는 작품이 보인 것은 그의 학문적 연원도 무시할 수 없다.

김인후는 박학의 학문자세를 견지하였는데 문집에 나타나는 시학의 연원을 살펴보면 『시경』, 『초사』를 비롯하여 도연명, 이백, 두보, 왕유, 한유, 백거이, 구양수, 소식, 주자 등에 근거하고 있다.¹⁴⁾ 유희춘은 하서의 시를 도연명의 시, 송경의 부, 이백의 채주, 주렴계의 성품을 지녔다고 평하였고,¹⁵⁾ 고경명은 성당의 하지장에 비유하였으며,¹⁶⁾ 이의건은 도연명의 귀거래와 소옹의 고사를 들어서 비유한 바 있다.¹⁷⁾ 따라서 이와 같은 시들을 전범으로 삼아 시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한시에는 여러 다양한 의식들이 담겨 있다.

이황은 기대승에게 보내는 答奇明彦에서 하서에 대해 피력했는데, “김하서는 성균관과 옥당에서 서로 주선하였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회포는 속세

12) “詩之於言 又其精者也 詩本性情 非矯僞而成 聲音高下 出於自然.”(『精言妙選序』, 『栗谷全書』 권2, 269쪽)

13) 정연봉, 「朝鮮 前期의 自然觀과 張維의 詩論」, 『고전비평 연구』 1, 국어국문학회, 1997, 257쪽.

14) 趙麟永, 『河西 詩學과 湖南詩壇』, 國學資料院, 1995, 78~79쪽.

15) “詩齊靖節菊 賦遍廣平梅 更喜探原本 會知夜半雷.”(『미암선생전집』 권2, 시, <和金河西麟厚韻 · 5>) “仙才侔太白 清水出蓮花”(〈和金河西麟厚韻 · 6〉)

16) “天末飄然白人間 謫在黃 難招紫烟客 無復思明狂.”(槇翁속집, 『槇翁전집』 상, 시, <次河西韻>)

17) “元亮辭彭澤 堯夫醉洛城.”(『國譯 河西全集』 하, 부록 권2, 281쪽. <敬次蘇齋弔河西韻>)

밖에 놓아서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노장사상이었고 중년에 자못 시와 술에 붕괴된 바가 되어서 아깝더니, 그 만년에는 유학에 유의한다고 들었다. 근일에 학문을 논한 문자를 보니 그 견식이 모두 정밀하니 심히 가상하게 여겼더니.”¹⁸⁾라고 쓴 바가 있듯이 김인후는 노장사상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성당을 대표했던 시인 이백은 여러 차례의 정계 진출 시도와 좌절, 초월 의지와 신선에의 지향, 그 자신의 개인적 방황의 궤적을 시로 표현했던 술과 달과 신선을 사랑한 자유인이었다.¹⁹⁾ 이와 같은 이백의 삶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었던 김인후로서 동류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시와 흥에 취했던 김인후는 유선의 세계를 동경하며 탈속의 공간인 자연세계에서 현실적 고뇌와 울분을 해소하고자 정신적인 초월을 동경하기도 하였다.

捧日圓巖峙	둥근 바위 재에 해가 떠오르니
羣山一望低	뭇 산이 한눈 아래 나직 하네
仙靈應貯醞	신선은 응당 술을 담아놓고서
塵裏笑醺鷄	티끌 속의 해계를 비웃겠구나

『全集』 권5, <甕巖孤標>

이 시는 면앙정의 경관을 신선세계로 묘사한 작품이다. 1구와 2구에서는 경이 묘사되었고 3구와 4구에서 정이 서술되어 있다. 작가는 인간세계를 떠나서 높은 대위에 올라 신선세계를 동경한다. 자신의 입지를 펼 수 없는 세상, 자신이 학문으로 닦았던 도가 실현될 수 없는 부조화의 세상을 비웃고 탈출을 꿈꾼다. 또한 신선의 시선으로 그런 인간세계를 비웃고 있다. 부조화의 세상과 얽히지 않고 자신은 맑고 깨끗한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다.

다음의 시는 <칠계십영> 가운데 하나인 김인후의 <선창범주>와 이 시에 차운한 퇴계 이황의 시이다.

(가)

百丈風潭六月秋	백 길의 풍담은 유월에도 가을 같고
亭前誰泛木蘭舟	정자 앞 목란배 그 누가 띄우는가
煙江一葉眞人臥	안개 낀 강 한 잎새 위에 진인이 누웠고
雲漢枯槎海客浮	은하수 마른 뗏목에 바다 객이 떠 있네
夜半飛鳴橫獨鶴	한밤에 외로운 학 울며 날아가고
波間出沒有輕鷗	물결사이 들락거린 가벼운 저 갈매기

18) “金河西는 芹宮玉堂에 相與周旋이라 其人이 遊於域中이로되 而放懷物表하야 其初人處 多在老莊이라 故로 中年에 頗爲詩酒所壞하야 爲可惜이러니 而聞其晩年에 留意此學이라 近方得見其論學文字호되 其見識이 儘精密 하니 想其間中所得이 如此라 甚可嘉尙이러니”(조남권·박은정, 『한국고전비평론』(新羅·朝鮮中期) 권3, 민속원, 2008, 321쪽)

19) 이백, 진옥경 역, 『이태백 악부시』, 사람과 책, 1998, 32쪽.

船窓擬訪仙滄叟 배 위에서 선창 노인 찾아 가려다가
魂夢長尋杜若洲 꿈 속에서 두야주를 한참이나 찾았네
『全集』 권10, <仙滄泛舟>

(나)

一泓流闊幾千秋 하나의 물줄기가 그 몇 천년 흘렀던가
今見騷人上釣舟 초나라 굴원을 고기 배 올라 보았네
蕩漾只從烟裏去 출렁출렁 안개 물결 속으로 가버리고
迴旋時向月中浮 배를 돌려 때때로 달을 향해 떠 가네
筆牀茶壺能言鴨 책상이나 찻잔 앞에서 오리를 말하고
細雨斜風不舞鷗 가랑비에 바람 비껴 갈매기 춤추는가
但識盈虛元有定 다만 차고 빈 근본은 본래 정함이 있으니
未妨吾道付滄洲 우리 도를 창주에 부쳐도 무방하리라
『퇴계선생문집』, 「별집」 권1, <次韻金厚之爲金季珍作漆溪十詠>²⁰⁾

유선시는 지상에서 꿈꾸는 천상의 세계이다. 16세기의 유선시에서 보이는 것은 열린 꿈의 세계이다. 늙지도 죽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나라, 황금궁전과 불변의 온갖 상징들, 인간 상상의 극한까지를 보여주는 이 환상세계는 종교적 신념을 떠나 낭만적 상상력의 공급원으로서, 또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중세적 꿈꾸기의 한 모식으로서 각광을 받았다.²¹⁾ 특히 김인후와 같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뜻을 표출할 수 없었던 지식인들은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를 완충하고 보상받는 곳이 바로 자연공간인 것이다.

(가)의 시는 하서의 작품인데 풍영정 앞의 경치를 선계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정자 앞에 목란배가 띄워져 있고 안개 낀 강가가 질곡의 세상을 단절시킨다. 학, 선창 노인, 꿈속의 이상향인 두야주는 그가 동경하는 초월적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 깨끗한 학은 더러운 세속과는 구별되는 새이며 청아하고 고답적인 기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학은 시인을 선계의 세계로 인도할 인도자이다. 선경을 추향하고 회구하는 김인후의 의식은 바로 세계와 자아의 부조화로 인한 정치의식의 갈등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하서는 도가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物外의 이상향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서 정신적인 이상향을 동경했던 것이다.

(나)의 시는 퇴계 이황의 작품이다. 16세기 영남 도학과 시인의 시가 지닌 특징적인 국면은 성리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이취적 서정과 고답적 정신 경계의 추구이다. 영남 도학과의 한 사람인 퇴계의 이 작품에서는 같은 풍영정의 모습을 묘사했

20) 김인후의 <칠계십영>은 김억령이 먼저 『석천시집』 권6에서 차운하였는데, <풍영정차김하서운>은 모두 7수 뿐이고 『퇴계선생문집』, 「별집」 권1에서 퇴계가 풍영정에 올라 <칠계십영>에 차운한 시 10수가 있다. 퇴계의 작품 가운데 <선창범주>만이 『광주읍지』에 실려 있다.

(趙麒永, 『河西全集과 湖南詩壇』, 國學資料院, 1995, 217~218쪽)

21)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79쪽.

는데도 하서의 시와 달리 관념성이 짙게 깔려 있다. 2구의 초나라 굴원을 등장시켜, 조정에서 축출당한 굴원의 입장이 조선조 사화와 당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과 동질감을 형성하여 시대적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8구에서도 “우리 도를 창주에 붙여도 무방하리라.”라는 구절이 보인다. ‘도’라는 생경한 언어가 그대로 직서되어 나타나는데 자연을 매체로 도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載道之器의 시로서 김인후의 시와 구별된다.

이와 같은 도가적 서정의 노장적 공간은 재도적 미의식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즉 벼슬살이와 관련된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기타 현실문제에 수반된 갈등이 선계에의 飛翔으로 나타났던 것이다.²²⁾ 그렇다고 근원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학에 바탕을 둔 일시적 일탈이다. 사대부들의 노장적 공간의 묘사는 절곡의 속세와 구분짓기 위한 상투적 표현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선계적 언어들은 사상적 바탕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탈속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상징적 언어들이었다. 때문에 문학에서는 재도적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자연 속에서 이러한 일탈은 이치적인 관념성이 배제된 순수한 감흥의 심미의식의 표출로 드러나기도 한다.

4. 순수감흥의 심미의식

사대부들이 탈속의 공간으로 찾은 자연은 그들의 사상적 바탕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흥취가 넘쳐흐를 때 자연 그 자체의 경물과 교감을 이루어 시적 화자의 순수한 서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대부들은 자연적 풍류나 개성의 표현으로써 탈재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감흥을 표출해내었다.

조선 중기 사림과 문인들의 시론적 기저에는 그들의 철학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적 수양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기교와 수식을 강조한 조선 전기 시단을 비판하여 성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 또한 성리학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심성 수양을 내세워 다양한 인간 정서의 특정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²³⁾ 인간의 자연스럽고 풍부한 시적 정서를 표현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김인후 역시 그의 시집에서 散見되는 이러한 관념시들이 지나치게 도덕이나 충효를 생경하게 노출하고 있어 그의 시가 도학의 시녀로 전락한 느낌을 줄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²⁴⁾ 심지어 순수한 자연시까지 도의 관념적 시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인후의 자연시 중에는 도학적 시론과 달리 훨씬 다양하고 유연한 시적 개성과 상상력으로 자연경물의 순수한 흥취를 형상화한 시들이 있어서 그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흥취는 시인이 외부 사물로부터 느낌을 받아 촉발되는 정서적 감흥 및 정취를 말

22) 이동환, 퇴계시세계의 한 국면, 『퇴계학보』 제25집, 퇴계학연구원, 1980, 74쪽.

23)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24) 이민홍, 武夷權歌 수용을 통해 본 士林派 文學의 一樣相, 『韓國漢文學研究』 6집, 韓國漢文學會, 1982, 28쪽.

하는데²⁵⁾ 그의 시세계에서 흥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정서적·심미적 자발성의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⁶⁾ 순수한 심미적 정서는 자연 자체를 순수한 미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그 흥취를 감수하며 그 가운데서 사대부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격조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의 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될 때 드러난다.²⁷⁾ 물론 김인후를 비롯한 퇴계나 율곡 등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서 도학적 성정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데 가치를 두었다.

특히 퇴계와 율곡은 시를 도학의 본분을 위한 존재로 인정하였다. 퇴계는 “시는 비록 末技이지만 성정에 근본을 둔다. 體와 格이 있어서 쉽사리 바꿀 수 없다.”고 함으로 문학은 성정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²⁸⁾고 했다. 그의 <도산십이곡>은 철저한 성리학적 삶의 자세가 형상화한 작품으로 溫柔敦厚의 품격을 지녔다. 또한 율곡은 일월성신으로부터 초목산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체가 깃들여 있다²⁹⁾는 견해를 보임으로 철저한 채도적 자연관을 보이고 있다. 즉, 도학자들의 자연 경물인식은 도체를 찾을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대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았을 때 흥취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학은 주제의 편협성을 면할 수 없었다.

김인후 또한 도학자였지만 자연경물의 인식에서 유연성을 보였다. 그에게는 자연경물을 도체로 인식하지 않고 순수한 서정적 감정표현에 충실한 작품도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김인후의 시적 연구의 폭을 넓혀서 그의 참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울러 16세기 호남가단의 이해에도 긴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김인후는 1600여수의 많은 시 작품을 남겼다. 그 중에서 누정시³⁰⁾와 자연경물을 대상으로 하여 읊은 시에는 관념을 배제하고 경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연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 흥취를 즐기는 작품들이 보여 주목을 끈다. 그는 도학자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지만 자연 앞에서는 순수한 자연인으로 직접 자연과 교감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흥을 진솔하게 묘사하였는데³¹⁾ 자연에 대

25) 이것을 다시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품을 읊은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운치라고 할 수 있다. 흥취에 의지하면 사상이나 언어가 생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상화된다. (조용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4, 72쪽)

26) 金興圭, 「河西의 詩意識에서 興과 性情」,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2집, 하서기념회, 2000, 158쪽.

27) 박은숙, 앞의 책, 41쪽.

28) 李 滉, 「與鄭子精」, 『퇴계전집』, 상 권35.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 而爲之”.

29) 李 珥, 「洪恥齊仁祐遊楓嶽錄跋」, 『栗谷全集』 권13, 跋. “天壤之間 物各有理 上自日月星辰 下至草木山川…皆道體所寓.”

30) 김인후는 여러 누정을 다니면서 시우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한시 작품을 남겼다.

그가 면양정을 소재로 지은 시로는 <면양정 30영> (『국역 하서전집』 상,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7, 권5), <奉別宋同知純> 1수(권6), <過遂初醉 次渭城韻> 2수(권7), <宋同知林居韻> 1수(권10), <俛仰亭韻> 2수(권10), <再題俛仰亭> 2수(권10) 등 모두 38수가 있다.

양산보의 소쇄원을 소재로 지은 시로는 <소쇄원 48영>(권5)을 중심으로 78수가 있다. 또한 김언거의 풍영정을 소재로 한 漆溪十詠이 있다. 그 외에도 누정시들이 많다. 김인후가 주로 활동하던 누정은 면양정, 소쇄원, 환벽당, 요월정, 풍영정, 귀래정, 청원루, 광한루 등이다.

31) “그가 자연을 가까이했다는 것은 花潭처럼 물을 물로 바라보며 진리를 찾으려 함은 아니고, 퇴계처럼 理法의 자연을 발견하려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율곡처럼 속을 떠나 자연에 깊숙이 침잠하여 閑美清適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興을 吟詠하여 가슴속의 오욕을 씻자는 것에 가깝다.”고 하여 하서의 자연관을 관념적 자연관으로 간주하려는 일반적인 논의와는 다른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김균태, 河西 金麟厚의 文學觀과 江湖詩 研究, 『宗教 人間 社會』,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8, 642쪽)

한 멋스럽고 세련된 심미의식을 드러냈다. 심미는 사전적으로 ‘미를 관찰하고 찾는’의 의미로 본고에서는 도학의 사유나 이취적 정서와 구별되는 자연에 대한 순수한 미적 탐구의 의미로 한정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김인후의 자연시 중에서 대표적인 누정시를 보면 우선 <면앙정삼십영>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면앙정 송순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일찍부터 교유하면서 교분을 깊게 쌓았다. 면앙정에는 많은 문인들이 드나들었으며 이들이 詩會를 열어서 면앙정을 중심으로 호남의 시단³²⁾이 형성되었고 하서도 적극 동참했음³³⁾을 알 수 있다. 송순이 시작활동을 하던 16세기는 무려 100여명이 넘는 시인들이 호남에 등장했으며 그들의 활동 무대는 향리의 누정이었다. 이 누정을 중심으로 왕래하면서 시로써 수작했던 한시의 부흥기이다. 16세기에 호남은 향리에 있는 그들의 정자를 중심으로 소위 시단을 형성하고 그곳에 접하지 못하면 선비로서 행세도 못할 정도로 무르익은 당시의 풍토와 주변의 우접이 마침내 호남에 큰 詩林을 이룩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갔던 때이다.³⁴⁾ 따라서 호남 사대부 한시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은 자연의 도학적 가치의 현현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인 심미적 대상으로 존재하며 문학적 형상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³⁵⁾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인후도 師友의 누정을 찾아 시우들과 교류하고 詩作도 하였다. 그 속에서 자연을 순수한 미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자연의 생명력과 그 흥취를 수용하였는데, 도학적인 사유는 미약해지고 정서적 함축이 풍부해지며 순수한 심미적 정서가 드러나게 된다.

다음의 시는 면앙정 27영이다.

靑陰松竹間	솔숲과 대숲 사이 맑은 그늘에서
好鳥迭鳴喚	아름다운 새가 번갈아서 울부짖네
逸響自千般	빼어난 새소리 절로 천 가락이요
聞來驚節換	듣다보니 철 바뀔에 깜작 놀랐네

『全集』 권5, <後林幽鳥>

이 시는 자연의 소리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묘사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숲

32) ‘詩壇’이라 함은 종래 국문학에서 일컬어 오던 ‘歌壇’과 달리 漢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르는 말이다. 만일, 이를 ‘歌壇’이라 하면 歌라기보다 詠위주의 한시는 흔히 도외시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한 작가의 詩 활동 전체를 염두하여 이를 지칭하려는 뜻에서 이처럼 ‘詩壇’이라 이르는 것이다.

(朴俊圭, 『宋俛仰亭研究』, 『一山 金俊榮 先生 停年紀念論叢』, 一山金俊榮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5, 69~70쪽)

33) 『면앙집』 권5, 『행장』에서 송순의 문하에 드나든 사람을 소개하면서 김인후를 제일 먼저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었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아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행장의 기록에 보면 교우 및 문하생으로 기록한 사람 가운데 石川 林億齡, 退溪 李滉, 瀟灑園 梁彥鎮, 高峰 奇大升, 松江 鄭澈 등의 이름이 있다고 적고 있다.(朴性奎, 『河西 金麟厚의 自然詩 研究』,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3집, 河西紀念會, 2005, 340쪽)

34)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374쪽.

35) 박은숙, 위의 책, 84쪽.

속 여러 새소리들의 고운 소리가 음향처럼 들려오는 듯하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자기도 모르게 도취된 상태다. 자연 속에서 과묵히 시간을 잊고 살다가 문득 자연의 변화에 철 바뀔을 의식하게 된다. 이 시에 형상화된 자연은 작가와 합일의 경지를 보여준다. 화자가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흥취가 매우 소박하고 자연스럽다. 이 시에서는 그 어떤 관념이나 목적전달을 찾기 어렵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 흥취를 느끼고 화자는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시를 통한 어떤 이념을 전달하기 보다는 대상을 사실적인 필치로 묘사했어도 무한한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김인후의 순수한 자연³⁶⁾에 대한 미학적 시각은 또 다른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極目平湖瀾	아득히 넓은 호수 이어져 있어
遊觀樂事多	구경하니 즐거운 일 많네
淸懷相映照	맑은 생각은 서로 물속에 어러 비치고
好景更森羅	좋은 풍경 볼수록 넓게 펼쳐져 있네
桂棹橫遙浦	아름다운 조각배 먼 갯가에 비끼어 있고
蘋洲帶晚沙	마른풀 물가 모래톱에 석양 깃드네
提携忘日暮	해 저무는 줄 모른 채 손잡고 노니는데
興入採菱歌	흥겹게 들려오는 연 캐는 노랫소리

『全集』 권8, <江湖契會圖>

이 시는 강호에서 같이 모여 즐기는 즐거움을 형상화한 것이다. 작가는 연꽃이 핀 호수의 수려한 경관에 촉발된 감흥을 서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한 흥취는 끝없는 호수에 조각배가 있고 저녁놀 내려앉은 호수에서는 연 캐는 소리가 흥겨워서 낭만적 정조를 불러일으킨다. 시적 화자는 벗들과 석양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호수에서 시간을 잊은 채 자연과 하나가 되어있다. 작가의 어떤 물욕이나 정치적 갈등도 배제한 탈속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도학적인 관념성이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평화롭고 낭만을 느끼게 함으로 여운을 남기는 서정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위의 시는 회화적 표현법에서 두드러진다. 이렇게 산수화처럼 묘화적인 순수 서경시가 많은데, 도학적 기풍이 지배적인 시인들의 작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의 넓은 시적 안목을 볼 수 있다.

帶得溪橋月	시내 다리 위에 뜬 달과 함께
行吟水上遊	시 읊으며 가서 물가에서 노니네

36) 여기에서의 순수한 자연이란, 성취되지 못한 정치적 욕망이나 避世, 더 나아가 載道之器라는 관련항 속에서 그 대척적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강호 자연과 구분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亂松依小麓	어지러운 소나무는 작은 산기슭에 기대 있고
盤石入中流	너럭바위는 물줄기 가운데 들어가 있네
在藻魚知樂	물풀에 노니는 고기는 즐거움을 알고
盈田稻有秋	밭 가득 찬 벼는 가을을 알리네
奇花明醉眼	기이한 꽃들 취한 눈을 밝히니
往馬立芳洲	가던 말을 방주에 세웠네

『全集』 권8, <環碧堂>

시인이 달빛이 쏟아지는 밤 환벽당의 시냇가에 나가서 물가를 노닐면서 지은 시이다. 산기슭의 소나무, 너럭바위 물풀 속의 물고기들, 풍년의 가을 들녘, 향긋한 풀숲 등의 묘사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달밤에 비추는 저녁 풍경의 섬세한 관찰과 자연의 흥취에 흠뻑 취해 있는 시인은 억누를 수 없는 정서적 감흥을 체험하고 심미적 자발성에 스스로를 맡긴다. 풍요로움과 고요하고 편안함, 그 속에서 만끽하는 흥취가 잘 드러난 시이다.

시적 자아가 서정적 주체 또는 심미적 주체로서 자연을 바라볼 때 이념적 울림보다 정서적 경험을 더욱 우선하게 된다.³⁷⁾ 따라서 김인후는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높은 도학적 성취를 암유하는 관념시들을 썼지만 한편으로는 자연과 합일하여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즐기고 향유하는 시들도 많이 써서 문학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심미적 정서를 드러낸 작품들은 누정시들에 많이 보인다. 권8의 <瀟灑亭卽事>나 권5의 <廣石臥月>³⁸⁾에도 같은 정서가 보인다. 이 시들은 소쇄원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 소쇄원을 배경으로 쓴 시에는 80수 정도가 있다. 김인후는 소쇄원에 드나들면서 여러 시우들과 돈독한 우의를 나누었다. 임억령, 송인수, 유희춘, 이후백 등과 교유하면서 그곳의 뛰어난 경물을 보고 서로 시주를 나누었다.³⁹⁾

<광석와월>은 <소쇄원48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시에서 소쇄원 너럭바위의 풍경을 묘사한 대목이 절묘하다. 달빛이 쏟아지는 밤, 소쇄원 너럭바위를 자리삼아 누워 있는 시인의 풍경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림처럼 조화된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아가는 흥취를 안정된 어조로 형상화하고 있고 내면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소쇄원48영>에는 곳곳마다 의미를 부여하여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탁월한 심미의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누정시를 비롯한 자연시에는 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몰입하는 인간 본

37) 성기옥의 4인 공저,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401쪽.

38) 露臥青天月 푸른 하늘 달 아래 나와 누우니
 端將石作筵 넓은 돌이 돛자리 대신이로세
 長林散清影 긴 숲에 흩날리는 맑은 그림자
 深夜未能眠 밤은 깊어가도 잠은 잘 오지 않네

『全集』 권5, <廣石臥月>

39) “先生與河西 同志相友善 且嫁娶子女.....河西至瀟灑園 輒數月志歸 同時名勝 如林石川宋圭菴柳眉巖李青蓮諸人慕悅相好 而石川最善.”(『소쇄원양공행장』, 『瀟灑園事實』 권3)

연의 정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는데 자연 그 자체의 서정을 순수하게 묘사하여 향유할 줄 알았던 그의 시적 감각은 시에 대한 세련된 안목을 드러내준다.

5. 결어

본 논문에서는 김인후의 자연관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자연 경물의 인식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16세기 도학자로 살았던 김인후의 획일화된 자연관의 시각에서 자연 그 자체의 흥취를 즐긴 순수한 심미성의 시까지 김인후 시의 다양한 시관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김인후의 자연 경물의 수용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자연 경물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아울러 16세기 호남시단과 사림파 작가들의 작품의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김인후의 자연 경물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철저한 도학자인 김인후의 자연인식은 일차적으로 천인합일의 이치를 내재한 본원적 공간으로서 심신을 수양하고 天理流行의 이치를 깨달아 성정을 함양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김인후에게 있어서 자연은 늘 관조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과 소쇄하고 청정한 정서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학적 사유의 형상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의 갈등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상향은 누구나 선망하는 공간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도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정쟁에서 밀려나 낙향하여 자연 속에 은거하고 자연세계의 자유로움을 음영하면서 현실적 고뇌와 울분을 해소하고자 정신적인 초월을 지향했던 것이다. 김인후도 자연으로 돌아와서 선경을 묘술하여 시인 자신의 탈속적 사상과 정감을 자연에 기탁하였다.

그런데 하서의 자연인식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 할 것은 興趣와 순수한 심미의식의 공간이었다. 하서는 누정을 비롯한 자연 속에서 성리학적인 관념을 배제한 순수한 시들도 많이 남겼는데, 이것으로 자연을 온전히 완상하고 그 아름다움에 몰입하여 서정적 자아에 충실했던 김인후의 자연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세기 호남 사대부들은 자연의 순수한 서정과 흥취를 수용한 작품들을 교류하여 문학적 정서를 나눴다. 순수한 서정과 형상화에 대한 경도는 외부 사물과 자연 경물에 대한 심미적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서는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떠나 자연 그 자체의 흥취와 서정을 드러내어 미감을 드러낸 시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서 문학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그는 당대 도학자들이 지녔던 재도적 시문관을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 감정에 대해서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정의 표출을 굳이 배제하지 않으려는 그의 개방적 시문관은 도덕적 자아유지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감정도출을 애써 기피하고자 한 당대의 도학자 일반의 태도와는 변별되는 것으로서 폭넓은 문학적 시관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문헌

1. 자료

김인후, 『하서전집』 상,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7.

-----, 『하서전집』 중,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7.

-----, 『하서전집』 하,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7.

柳希春, 『眉巖先生全集』 권2

李珣, 『栗谷全書』 권2

『瀟灑園事實』 권3

2. 저서

국어국문학회, 『고전비평연구』 1, 태학사, 1997.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4.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출판부, 1998.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유호진, 『韓國漢詩의 人生理想』, 태학사, 2006.

이향배, 『한국한시 비평론』, 이회문화사, 2001.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 『한시미학산책』, 솔, 1996.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 『河西 詩學과 湖南詩壇』, 國學資料, 1995.

조남권·박은정, 『한국고전비평론』(新羅·朝鮮中期) 권3, 민속원, 2009.

趙潤濟, 『韓國文學史』, 陶南學會, 1998.

조윤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4.

河西學術財團,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河西記念會, 1994.

河西學術財團, 『河西김인후의 思想과 文學』 제2집, 河西出版社, 2000.

河西學術財團, 『河西김인후의 思想과 文學』 제3집, 河西出版社, 2005.

3. 논문

김균태, 「河西 金麟厚의 文學觀과 江湖詩 研究」, 『宗教 人間 社會』, 한남대출판부, 1988.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安 昞, 「河西 金麟厚 文學思想 研究」,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0.

李敏弘, 「士林派文學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朝鮮 前期 自然美의 追求와 漢詩-性情美學과 山水詩」, 『한시 연구』 7, 태학사, 1997.

李鍾建, 「瀟灑園四十八詠考」, 마산대 논문집, 6권 1호, 1984.

정연봉, 「朝鮮 前期의 自然觀과 張維의 詩論」, 『고전비평 연구』 1, 국어국문학회, 1997.

A study on acceptance And Configuration Of Senery By Haseo Kim In Who

By Han Seong-geum

Haseo Kim, In-Who was an outstanding literary person and Taoist of the 16th century. As he perceived poetry as a linguistic device for Taoism and wrote a number of poetry based on Taoism, his poetry was considered as poetry of nature and Taoism by many.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his perspective and feeling on natural sceneries, suggesting that there were only a few studies on the nature in his poetry although he was very sensitive to the nature and wrote a lot ab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studying diversification of poetry by Kim, In-Who.

His perception on natural sceneries is as follows: Kim, In-Who, a thorough Taoist, considered the nature as a place of training himself. Therefore, the nature was configured as a crystal-clear emotion of a learned man in his poetry. It was a space where he could dream transcending the society in disharmony and conflicts between self and the society. Being pushed out from political competition, he relieved his agony and grief in the nature and entrusted the nature with unworldly thoughts and sentiment.

The nature was the space of excitement and aesthetic consciousness, which is noteworthy in respect to his natural perception. He wrote a number of poetry which showed his exclusion of Confucian ideas in natural sceneries. The poetry has additional literary values as it described aesthetic consciousness through being immersed in beauty of the nature. Although he shared the perspective on poetry Taoists had at that time, he was open to nature-oriented emotion. He was different from other Taoists who were aware of emotion as a subject to be controlled and compelled emotional control and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xpansion of Taoic literature.

Key words: Taoists, Taoism Poetry (Confucian Poetry), natural scenery, unworldly thoughts and emotion, excitement, aesthetic consciousness